http://dx.doi.org/10.15686/FKL.47.0.1

우에노 치즈코의 젠더-본질주의 비판*

김주희**

목차

1. '관계적 실천'으로서의 번역
2. 2015년의 시간성과 '젠더-본질주의'의 부상
3. 『여성혐오를 혐오한다』와 혐오의 병리화
4. 1995년의 시간성과 지식의 "시기상조"론
5. 비판으로서의 아시아 페미니즘 제안

〈국문초록〉

이 글은 『여성혐오를 혐오한다』로 대표되는 우에노 치즈코의 번역물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페미니즘 지식문화의 동아시아적 유동과 변환의 의의를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에서 동아시아론은 20여 년간 토론되어 온 지식사회학의 주제이지만 2015년 페미니즘의 대중화에서 두드러지듯 페미니즘은 여전히 한국 사회를 설명하고 설득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도구로 집중되고 있다. 이에 본고는 동아시아를 번역 관계적 관점에서 조망하면서 우에노 치즈코의 저작과 함께 1995년의 시간성과 2015년의 시간성을 병치하였다. 이를 통해 2015년 이후 페미니즘의 전례 없는

* 이 논문은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로(2017S1A6A3A01079727), 14th Ewha Global Empowerment Program (EGEP) International Open Forum과 2019년 한국여성문학학회 봄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세심한 토론을 통해 논문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준 류진희 박사와 익명의 심사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서강대학교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

열풍 속에서 목격되는 일부의 경향을 젠더-본질주의라는 이름으로 문제 삼고 이러한 경향이 발전의 대상으로 아시아를 동원하고 이를 국내외적으로 수용한 1995년의 효과임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는 혐오를 병리화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우에노 치즈코의 저작 『여성혐오를 혐오한다』와 한국 혹은 아시아와 일본의 동시대성을 거부하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가 내재한 문제와 겹쳐진다. 이에 본고는 보편적 여성 인권 담론에 대한 포스트식민주의적 성찰을 통해 젠더 본질주의 페미니즘에 의해 강화되는 아시아 페미니즘을 경계하고 역사적 시간성을 고려한 정치적 저항의 가능성을 만들어낼 것을 촉구하였다.

국문핵심어 : 우에노 치즈코, 『여성혐오를 혐오한다』, 번역의 정치, 젠더 본질주의, 페미니즘 대중화, 아시아 여성학

1. '관계적 실천'으로서의 번역

"페미니즘 지식문화의 동아시아적 유동과 변환"이라는 특집 주제는 언뜻 익숙한 것 같지만 사실 생소하고 새로운 주제임이 틀림없다. 1984년 창립된 한국여성학회는 1985년부터 약 35년간 학회지 『한국여성학』을 발간해왔는데 이 학회지에 '동아시아'라는 키워드로 검색되는 연구논문은 단 한 편뿐이다.[1] 그나마 이 논문 역시 "페미니즘 지식문화의 동아시아적 유동과 변환"이라는 주제를 통해 소환되는 성격, 상태, 지향으로서의 동아시아, 다시 말해 지리적 범주를 넘어 탈냉전 시대 대안 지식론으로 이해되곤 하는 소위 '동아시아론'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1999년부터 발간된 『여성문학연구』에서 '동아시아'라는 키워드로 검색되는 연구논문 역

1) 정이환·김영미·권현지, 「동아시아 신흥 선진국의 여성고용: 한국과 대만 비교」, 『한국여성학』 제28권 1호, 한국여성학회, 2012, 147-181쪽. 이 논문은 "동아시아 신흥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한국과 대만의 여성고용을 비교하는 연구이다.

시 2000년 12월 특집 주제였던 “동아시아의 근대성과 ‘신여성’ 문학”에 포함된 다섯 편이 전부이다. 이 역시도 한국, 중국, 일본 각국의 신여성 문학을 중심으로 근대성을 분석하는 작업에 골몰하였다.[2)]

1990년대 초반 촉발된 동아시아론은 지난 25년간 한국에서 그 필요를 설득하거나 때로는 기각을 요청하면서 분단, 냉전, 지역연구, 지식공동체 등의 주제와 결합하여 수많은 담론을 생산하였지만, 페미니즘이라는 키워드와는 좀처럼 결합하지 못했다. 한국에서 페미니즘이 한국 사회를 설명하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역할에 골몰했던 까닭일 것이다. 동아시아론 논의가 진행되던 1994년 출판된 “민족 담론과 여성”이라는 글에서 김은실은 “한국적 페미니즘”이라는 말로 여성주의의 현실 적합성을 질문하는 체하면서 여성주의적 문제의식을 특정 방식으로 구속하고자 하는 시도를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다.[3)] 후술하겠지만 25년이 지난 지금, 특히 2015년 이후 전례 없이 페미니즘이 대중화되어 확산된 현실의 국면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은 유효해 보인다. 한국에서 페미니즘은 적합성 논쟁을 돌파할 특별한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 채 오직 서구의 그것과 줄곧 비교되면서 페미니즘의 동아시아적 유동과 변환이라는 지식문화의 인식론, 때로는 방법론은 충분히 토론될 기회가 없었다.

하나의 유의미한 예외적 시도를 꼽는다면 일본군 ‘위안부’ 운동과 이를 둘러싼 담론적 실천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4)] 1970년대 기생관광 반

2) 이덕화, 「신여성문학에 나타난 근대체험과 타자의식: 김명순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4권, 한국여성문학학회, 2000, 17-47쪽; 이사라, 「『여자계』를 통해 본 신여성 담론과 시」, 앞의 책, 53-75쪽; 하효홍, 「신문기사에서 소설까지: 호방란 사건 분석」, 앞의 책, 81-115쪽; 김은희, 「1920년대 중국여성문학과 대중매체」, 앞의 책, 121-149쪽; 에구사 미츠코, 「신체언설에 나타난 근대화: 여사야정자 『흐트러진 머리(みだれ 髪)』의 표현을 통해서」, 앞의 책, 155-172쪽 참조.

3) 이 글에서 김은실은 “한국적 페미니즘”을 요청하는 담론은 “‘민족’이나 ‘전통’이라는 언설과 결합되어 하나의 문화 관념을 형성하면서, 거기에 대한 비판적 접근은 일종의 금기가” 되어 결국 “우리사회의 여성주의적 질문은 상식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정서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명령”하는 “강력한 문화 이데올로기를 생산하는 담론”임을 주장하였다. 김은실, 「민족 담론과 여성: 문화, 권력, 주체에 관한 비판적 읽기를 위하여」, 『한국여성학』 제10권, 한국여성학회, 1994, 18-19쪽.

대운동에서 이어진 한일 교회여성들의 연대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을 통해 초국적 여성 연대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 강가람은 이 법정이 각국 사회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의미화되면서 "각 연대 주체들의 정체성의 차이"가 드러난 장이었다고 분석하였다. 그가 말한 "초국적 연대는 동일한 이슈에 대한 동일한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입장의 차이'에 기반을 둔 연대"라고 주장은 의미심장하다.[5] 나는 페미니즘 지식문화의 동아시아적 유동과 변환이라는 주제를 고려함에 있어 강가람이 지적한 이러한 "입장의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단순히 지식에 국적을 기입해야 한다는 논의를 넘어 지식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역사적 맥락, 정치적 시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에 가깝다. 물론 이것은 역사적 시간성을 공간화하며 정박하려는 경향과는 정반대에 있다.[6]

---

4) 다음 각각의 연구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동아시아적 연대, 운동, 갈등, 재현 이슈에 대해 참조할 수 있다. 곽진영, 「동아시아 거버넌스와 NGO연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초국적 연대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15권 3호,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06, 31-62쪽; 문소정, 「동아시아 여성평화운동과 일본 여성의 횡단정치학」, 『사회와 역사』 제89권, 한국사회사학회, 2011, 305-335쪽; 김용복, 「일본 우경화, 한일관계 그리고 동아시아: 과거사 갈등과 영토분쟁」, 『경제와사회』 제99호, 비판사회학회, 2013, 36-62쪽; 윤영실, 「동아시아의 '장소들'과 한국근대문학의 탈영토화: 조선인 '위안부'재현 서사들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67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7, 79-120쪽.

5) 강가람, 『2000년 여성국제법정을 통해 본 초국적 여성 연대의 가능성: 한일 사회 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6, 105-108쪽.

6) 역사적 시간성을 공간화하는 것은 결국 지식의 권력 관계적 구성을 옹호하고 지역-공간을 자연화하여 지배하려는 시도와 맞닿는다. 마르크스주의 문화연구자 프레드릭 제임슨은 백낙청과의 대담에서 현재를 "공간의 새로운 중요성으로 특징지어진" 시대로 진단하고 "자본주의가 소멸시키는 공간의 구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백낙청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탈근대 시기에 국제주의와 지역주의 사이에서 새로운 종류의 변증법이 성립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프레드릭 제임슨, 신현욱 역, 『문화적 맑스주의와 제임슨』, 창비, 2014, 162-163쪽. 김현미는 문화횡단의 필수적 요건인 문화들의 동시대성을 거부하는 시공간적 거리두기는 타자를 자아와 다른 시간, 공간적 지점에 둠으로써, 둘 간의 메울 수 없는 "문명적 격차"를 상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미, 『글로벌 시대의 문화번역』, 또하나의문화, 2005, 50-51

동아시아론에 비판적 담론 개입을 시도하는 견해 역시 이러한 입장의 차이라는 지점에 주목한다. 쑨거가 "경험성 이론은 가능한가?"라고 자문하면서 동아시아론은 "개별의 방식으로 '보편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7] 또한 윤여일은 동아시아 '공동체'는 "미래에 실현될 공동성을 위해 국가 간의 불균등 발전과 비대칭적 규모의 차이라는 현실 상황을 직시해 상호 번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그는 동아시아를 번역공간으로 규정하면서, 서구 중심적 "위계적 번역 상황을 직시하고", 동아시아 역내 "타국 사상계와 상호 번역에 나서야" 하며, 한국 사상계 안에서도 "내부 번역"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8] 본고는 윤여일이 주장한 이러한 "번역공간으로서의 동아시아론"을 적극적으로 인용하되 이때의 번역을 '관계적 실천'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1990년대 소위 "번역의 문화적 전환" 이후 번역은 한 언어가 다른 언어로 대체되는 것을 넘어 이질적 문화가 접합하고 교차하는 장면을 분석하는 문화연구의 주제가 되었다.[9] 대표적으로 호미 바바에게 번역은 이전(transference)을 수반하는 전이(translation)의 문제로서 의미와 참조성의 구조를 양가적 과정으로 만드는 언표작용적인 제3의 공간의 개입을 의미하는 것이었다.[10] 본고에서 번역을 '관계적 실천'으로 정의한다는 것

쪽. 나아가 "동시대"라는 말을 통해 문화연구에서 시간이 처한 위기를 분석한 글로는 다음을 참조하라. 서동진, 「낌새채기로서의 비평」, 『동시대 이후: 시간—경험—이미지』, 현실문화연구, 2018, 10-41쪽.

7) 쑨거, 김민정 역, 『왜 동아시아인가: 상황 속의 정치와 역사』, 글항아리, 2018, 39쪽.

8) 윤여일, 「동아시아라는 번역공간」, 『경제와사회』 제93호, 비판사회학회, 2012, 205, 215쪽.

9) 정혜욱, 『번역과 문화연구』, 경성대출판부, 2010; 임명진, 「번역, 권력, 그리고 탈식민성」, 『현대문학이론연구』 제50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12, 171-198쪽.

10) 호미 바바, 나병철 역, 『문화의 위치: 탈식민주의 문화이론』, 소명출판, 2002. 이와 같은 정의에 따라 문화인류학자들은 문화기술지 작업을 적극적인 의미의 문화번역 작업으로 정의하기도 했다. 김현미는 "문화적 텍스트(원전)와 문화적 텍스트(번역된 텍스트) 간의 상호 텍스트성(intertextuality)의 강조는 두 개의 다른 상징과 의미 체계의 관계를 만들어 주는 것"이며, "번역자가 두 가지 상징체계를 조정, 조작하는 측면이 바로 문화번역의 정치학이 개입하는 부분"이라고 정의한다. 김현미, 앞의 책, 53쪽.

은 다름 아니라 이처럼 한 언어가 다른 언어로 완벽히 대체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모순에 대한 문화적 해석과 개입을 통해 번역 가능성의 공간을 확장하고자 하는 실천을 내포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페미니즘 지식문화의 동아시아적 유동과 변환이라는 생소한 주제를 탐구함에 있어 동아시아를 번역 관계적 관점으로 조망한다는 것은 각 언어에 새겨진 입장의 차이가 번역을 통해 새로운 페미니스트 담론장을 창출하는 역동을 살펴본다는 의미이다. 본고는 바로 이런 지점에서 일본의 페미니스트 우에노 치즈코(上野千鶴子)를 소환하고자 한다.[11]

우에노 치즈코는 '한국 페미니즘'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갈등해온 일본의 페미니스트 중 한 명이다. 1970년대 초반 일본에서 일어난 우먼리브 마지막 세대에 속하는 그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페미니즘 지식장에 많은 영향을 끼친 지식인이자 필진이다. 얼마 전 우에노 치즈코가 일본 사회 내 여전히 만연한 성차별 문제를 비판적으로 지적한 도쿄대 신입생 축사는 그 내용의 급진성으로 인해 또 다시 국내에서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다. 1991년 번역 출간된 『90년대의 아담과 이브』를 필두로 한국에서 번역된 우에노 치즈코의 책은 대략 25권이다. 페미니스트 연구자로서 뿐만 아니라 해외 인기 작가와 견주어도 독보적인 수의 도서가 번역되고 읽혔다. 또한 수의 문제를 넘어 그는 가족, 노동, 섹슈얼리티, 역사를 아우르는 페미니즘의 전방위 이슈를 다루며 동시대 페미니즘 지식문화장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본고는 2012년 한국에 번역 출간된 『여성혐오를 혐오한다』를 중심으로 번역과 수용의 정치학을 분석하는 것에 집중할 것이다.[12] 이 책은 한국에서 페미니즘 대중화의 시기를 지나며 2016에만 1만 부가 팔리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13] 이를 통해 본 연

11) 이 글에서는 上野千鶴子를 모두 '우에노 치즈코'라고 한글 표기한다.

12) 우에노 치즈코, 나일등 역, 『여성혐오를 혐오한다』, 은행나무, 2012. 이후 이 책에 대한 인용 표시는 본문 괄호 안에 페이지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대체한다.

13) "2012년 출간된 『여성혐오를 혐오한다』는 출간 후 지금[2016년 8월]까지 나간 1만 5000여부 가운데 1만부가 올 들어 팔린 것." 정원식, 「'응답하라' 20대 여성들, 페미니즘 도서 열풍 이끈다」, 『경향신문』, 2016.08.09.

구는 페미니즘 지식문화의 동아시아적 유동과 변환의 의의를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2015년의 시간성과 '젠더-본질주의'의 부상

우에노 치즈코의 『여성혐오를 혐오한다』는 2012년에 번역 출간되었지만 서적의 판매 부수를 포함하는 담론적 영향력 측면에서 보았을 때 페미니즘 대중화의 촉발 시점인 2015년의 시간성에 속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페미니즘 열풍은 이전에 대중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던 '여성혐오'라는 단어와 접속했다는 점이 특징적인데, 그 배경에 이 책이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책 제목은 줄임말로 '여혐혐'이 되는데 이는 2015년 온라인에서 탄생한 메갈리아의 그 영리한 '받은만큼 돌려준다'는 미러링 전략의 선구적 샘플이다. 이 책의 원제는 "여성을 싫어함: 일본의 미소지니(女ぎらい: ニッポンのミソジニー)"이다. 미소지니(misogyny)가 한국에서 여성혐오로 번역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지만[14] 이러한 토론이 무색할 정도로 현재 여성혐오라는 말과 그 의미는 널리 퍼졌고 특히 2018년 초 촉발된 '미투/위드유' 국면을 지나면서 대중 담론장에 등장한 페미니

14) 처음 '여성혐오'라는 말이 확산될 당시 혐오라는 단어가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을 지칭하는 말로 이해되어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대중들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남자는 여자를 싫어하지 않고 매우 좋아한다'는 반응이 대표적이다. 이에 미소지니의 번역어로 여성혐오가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들이 청취되었다. 정희진은 한 칼럼에서 『여성혐오를 혐오한다』에 대해 "이 책은 제목 덕분에 여성학 분야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원제대로였다면 팔렸을까? 누가 일본의 미소지니에 관심이 있겠는가."라고 평하기도 했다. 정희진, 「미소지니=여성혐오?」, 『한겨레』, 2017.08.04. 당시 한국에서 '여성혐오'라는 말이 채택된 상황에 대한 비판적 토론에 대한 후기는 다음의 글을 참조하라. 김주희, 「오늘 왜 페미니즘은 '혐오'와 접속했는가: 『말과활』 2016년 가을 혁신호 발간 기념 토론회 후기」, 『말과활』 제12권, 일곱번째숲, 2016, 105-113쪽.

스트들의 강력한 지적 무기가 되었다. 이 책에 대한 평가는 다음 장에서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고, 본 장에서는 먼저 이 책이 속한 2015년의 시간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2000년대 들어 여성학, 페미니즘은 언제나 '위기'라는 말로 진단되었다. 이를 떠올려보면 2015년 한국에서 페미니즘은 다소 갑작스럽게 재부상했다. 『조선일보』의 2007년 신년특집의 제목은 "전투복 벗는 페미니즘"이었는데 시대착오적 페미니즘이 여성들로부터 외면을 당하여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여성들의 16.5%가 "나는 페미니스트"라고 답했음에도 「20-30대 여성 55% "난 페미니스트 아니다"」라는 제목이 사용되었다.[15] 2012년 이화여대 여성학과 30주년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지만 이 행사를 다룬 역시 『조선일보』 기사의 제목은 「'여성 파워' 이대 여성학과 30주년이 조용하다는데」였다. 기사는 부제목—"살기 힘든데 여성학이 웬 말? 인문학 퇴조 분위기 속 지원자 줄고 연구도 주춤. 보육, 저출산 등 핫이슈 정책적 대안 만들어내야"—을 통해 여성학의 나아갈 길을 충고하기도 했다.[16] 언론과 대중 담론은 보육, 저출산에 대한 여성주의 관점의 정책 대안을 '시기상조', '국민 정서' 등을 이유로 숙고하지 않은 채 2000년대 페미니즘을 무용론, 위기의 시기로 정의하였다.

1997년 개설된 숙명여대 대학원 여성학 협동과정은 학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7년 폐지되었다. 학교 측은 "여성 리더를 양성하고 여성 리더십을 개발하고자 하는 학교의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웠다.[17] 이후 상지대 석사학위 과정, 성균관대 학부여성학 연계전공, 계명대 여성학과 등이 줄줄이 폐지되었다. 사실 여성학의 위기는 아래로부터

15) 최보윤, 「[전투복 벗는 페미니즘] 성의 정치 대신 생활정치 입는다」, 『조선일보』, 2007.01.01; 최보윤·김미나, 「[전투복 벗는 페미니즘] 이젠 남성이 여성학의 '소비자'」, 앞의 신문, 2007.01.02.

16) 김윤덕, 「'여성 파워' 梨大 여성학과 30주년이 조용하다는데…」, 위의 신문, 2012.01.28.

17) 김향미, 「여성학 폐지는 인문학의 위기」, 『경향신문』, 2011.09.13.

의 외면이라기보다 여성학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위로부터의 백래시라고 보아야 한다. 여성학 무용론을 강조하면서 보육, 저출산에 대한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나 여성 리더십을 개발하고자 하면서 여성학과를 폐지하는 행보는 모두 여성학에 대한 몰이해와 관련이 있다. 게다가 숙명여대는 1960년, 한국 대학 최초의 부설 여성연구기관인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를 설립한 학교이다. 김영선은 아시아여성학 연구대상으로서 아시아의 각국에 대한 이해가 발전, 심화되기 시작한 것은 국경을 넘은 여성(주의)연구자들이 본격적으로 상호 교류하면서부터라고 분석하면서, 그 첫 역사적인 만남의 자리로 1993년 숙명여대 아시아여성연구소와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1회 동북아세아 여성학술대회를 꼽은 바 있다.[18] 아시아를 여성 연구의 아젠다로 처음 주목한 숙명여대에서 여성학이 폐지된 것은 2000년대 여성학의 위기를 지나 직면하게 된 페미니즘 대중화라는 현재를 분석하는 데 있어 무척 징후적인 사건이다. 아시아를 소거하거나, 탈아시아적 위치에서 아시아를 타자화하는 페미니즘이 요청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에서 여성학의 종언이 끊임없이 회자되던 시기에 우리는 페미니즘이 대중 담론으로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목격하였다. 오랫동안 고립되어 방치되어 있던 단어 '페미니즘', '페미니스트'에 많은 사람이 주목한 시작점은 조금 엉뚱했다. 18세의 '김 군'이 "나는 페미니스트를 싫어한다"고 자신의 SNS에 글을 남기고 집을 떠나 IS에 가담했다는 뉴스가 그 시작이었다. 여기에 동아시아의 문화적 타자 '이슬람'이 연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장면은 페미니즘 대중화와 관련해서 매우 특징적이다. '김 군 사태' 이후 얼마 뒤 유명 남성 팝 칼럼리스트는 한 잡지에 "IS보다 (한국의) 무뇌아적 페미니즘이 더 위험해요"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19] 이 칼럼의 여파로 많은 여성들이 SNS를 통해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

18) 김영선, 「한국 여성학 제도화의 궤적과 과제」, 『현상과인식』 제34권 3호, 한국인문사회과학원, 2010, 323-350쪽.
19) 김태훈, 「IS보다 무뇌아적 페미니즘이 더 위험해요」, 『그라치아』 48호, 2015.02.02.

선언을 했고 이 장면은 한국 페미니즘의 대중화에서 중요한 장면이 되었다. 이 칼럼에서 저자는 “페미니스트란 남성을 상대로 싸운 검투사가 아니라 시스템과 싸운 혁명가”라며 한국 페미니스트들에게 1960년대 서구에서 시작된 페미니즘의 교훈을 잊지 말 것을 당부했다. 페미니즘을 싫어하는 김 군은 이슬람을 페미니즘이 수입되지 않은 남성들의 유토피아로 상상했고, 현재의 페미니즘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그 칼럼리스트는 한국 페미니스트들이 서구의 진정한 페미니즘의 역사와 전통을 알아야 한다고 훈계했다. 이들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페미니즘이 없는 이슬람’과 ‘페미니즘이 완성된 서구’의 가운데 놓여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그 직후 부상한 페미니즘 내부의 담론 정치에서도 한국은 이슬람과 서구의 사이에 있다고 가정된다. 한국 남성들의 후진성, 가부장성을 지적하고자 만들어진 신조어 “유슬림(유교+무슬림)”이 대표적이다. 이제 더는 널리 사용되지 않지만 “한남(한국 남성)”과 대비되는 “갓양남(god+서양 남성)”이라는 신조어도 만들어졌다. 이슬람 국가는 페미니즘의 과거로, 서구는 페미니즘의 미래로 제시되는 것이다. 많은 이들은 다양한 국제 지표를 인용하며 한국에서 여성들이 얼마나 살기 힘든지 설득했다. 2017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Global Gender Gap Report 2017 결과에서 한국의 성 격차 지수가 0.650으로 조사대상 144개국 중 118위로, 튀니지(117위)와 감비아(119위) 사이에 위치한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한국이 아프리카 국가와 비슷한 순위라는 것은 대중에게 페미니즘이 필요한 이유를 설득할 손쉬운 방법이 된다. 하지만 이런 설명 속에서 우리가 모방해야 할 서구와 우리가 극복해야 할 아시아, 아프리카라는 이분법 역시 강화된다. 아프리카, 아시아는 후진성을 체현한 공간으로 남성화되면서 그곳 여성들의 삶은 타자화되며 피해자화되고 우리가 공통으로 경험하는 역사적 시간성은 분절되어 공간화된다. 무엇보다 이러한 문제는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여성들의 삶을 진지하게 분석하기 어렵도록 하고 세계인의 역사적 연결성을 비가시화한다.

한동안 SNS에서는 “70년대 이란 여성의 모습”이라는 사진이 온라인

페미니스트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유통되었다. 스카프를 쓰지 않고 맨 다리를 드러낸 서양 복식의 1970년대 이란 여성들의 사진과 대비되는, 모두 한결같은 검은색 차도르를 입은 2009년 이란 여성들의 사진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명확해 보인다. '페미니즘이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 이때 여성해방의 미래는 서양 복식으로 상징되며 이란 여성들의 몸을 통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후진성이 재현된다. 최근에는 "리버럴[페미니스트]들의 판타지"라는 제목 아래 성조기 베일을 쓴 젊고 예쁜 여성 이미지와 대비되는, "리얼리티"라는 제목의 '염산 테러'를 당해 일그러진 얼굴에 검은 베일을 쓴 피해자 여성들의 사진이 온라인을 떠돌고 있다. 이 사진은 '염산 테러'로 인한 공포와 고통을 베일의 효과로 단순화하여 전시한다. 페미니스트 역사학자 조안 스콧(Joan Scott)은 이슬람 여성들의 베일은 그들의 깊은 종교적 믿음으로 해석되지 않고, 언제나 열등성의 기표, 남성에 의해 입혀진 것, 위협받는 서구로 이해되고 있음을 지적했다.[20] 서구 자유주의 전통 안에서 이슬람은 종교적 의미를 넘어 서구 문명의 완결성을 증명하는 타자였고 이러한 문명권에 사는 사람들은 손쉽게 인종화, 젠더화된다.

일찍이 류진희는 "여성 혐오에 대한 혐오('여혐혐')와 남성혐오('남혐')를 구분할 수 있을까?" 질문하며 2000년대 한국 여성에 대한 혐오와 2015년 "미러링"으로 대표되는 메갈리안 현상에서 각각 인종화의 징후를 도출하였다. 나아가 이때의 메갈리안들은 2000년대 '촛불 소녀'로 사실상 1990년대 대중문화의 자장에서 탄생한 신자유주의 주체라는 점을 지적해 냈다. 그는 이러한 이들이 다른 진보적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견인하지만 동시에 "코피노(Kopino)"로 대표되는 아시아를 경계하는 역설적인 장면을 포착한다.[21] 이러한 류진희의 분석은 2018년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20) Joan Scott, *The politics of the veil*,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7.

21) 류진희, 「'촛불 소녀'에서 '메갈리안'까지, 2000년대 여성혐오와 인종화를 둘러싸고」, 『사이間SAI』, 제19호,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5, 41-66쪽.

난민 남성에 대한 일부 페미니스트들의 반응을 예견한다. 예멘 난민 남성 입국 소식이 전해지자 보수단체는 물론 온라인 커뮤니티의 여성들도 어머니의 이름으로 때로는 페미니스트의 이름으로 난민 수용 반대 국민청원을 이어갔다. 이런 맥락에서 한 페미니스트 철학자 역시 난민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난민 남성에 대한 재사회화 교육"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현미는 이러한 페미니스트의 발언 이후 난민을 반대하는 페미니스트, 여성들과 보수 정치인, 근본주의 기독교와 강력한 "감정 연합"이 촉발되었다고 분석하면서 이를 "난민 포비아"의 정치적 정동으로 명명했다.[22]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예멘 난민 남성들이 한국 여성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부자로 등장할 때 본국에서 제국주의 전쟁과 이로 인한 빈곤, 가부장적 폭력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예멘 여성들의 현실은 지금 우리가 결속하고 있는 페미니즘과 무관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역학관계상 한국 남성들은 예멘 남성을 적극적으로 추방하고 안정화시켜야 하는 주체로 등장하게 된다. 여성인권을 수호한다는 미명 아래 전쟁이 지지되기도 하는 현실이 대표적이다.[23] 민가영은 식민지 시기에는 제국과 식민지 간의 "문명분업"이, 발전주의 시기에는 1세계와 3세계 간의 "인권분업"이 있었다고 적절하게 지적했는데 "'보편적 구원자'와 '보편적 희생자'라는 이분법적 관계에 기반한 '인권분업'의 사례"로 바로 이러한 예멘 난민의 사례가 있을 것이다.[24]

나는 2015년 이후 최근 페미니즘의 전례 없는 열풍의 한 측면에서 목격되는, 일부의, 그러나 간과될 수만은 없는 한 가지 경향을 '젠더-본질주의(gender-essentialism)'이라는 이름으로 문제 삼고자 한다. "젠더 본질주의(gender essentialism)"는 남성과 여성이 선천적으로 그리고 근본적

22) 김현미, 「난민 포비아와 한국 정치적 정동의 시간성」, 『황해문화』 제101호, 새울문화재단, 2018, 220쪽.

23) Inderpal Grewal, *Transnational America: Feminisms, Diasporas, Neoliberalisms*,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2005, p.133.

24) 민가영, 「국가횡단적 비교 여성학의 모색: 아시아 여성학에 대한 재검토를 중심으로」, 『역사와 문화』 제21권, 문화사학회, 2011, 81-97쪽.

으로 관심과 기량이 다르다고 믿는 것이다.[25] 사실 젠더는 성이 자연적인 성질의 것이 아님을 지적하고자 사용되는 말이기 때문에 젠더 본질주의라는 말은 그 자체로 모순적이다. 나는 이러한 젠더와 본질주의 사이의 모순적 연결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음표를 사용하여 '젠더-본질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여러 연구에서 지적하듯 페미니즘 안에서 젠더-본질주의적 경향은 2015년 말 "오직 여자만 챙긴다"는 기치를 앞세워 메갈리아에서 워마드가 파생되면서 두드러졌다. 김보명은 이러한 워마드의 행보를 "지금 이곳에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특정한 '원본'을 참조하고 패러디하기보다는 역사와 문화 저편에 놓인 원형적인 남성폭력과 그에 대응하는 동등하게 강력한 힘으로서의 본질주의적 여성 범주를 그려"내는 "문화 본질주의(cultural essentialism)적 전략"으로 정의한다.[26] 나영은 이러한 페미니즘은 "그들의 주장대로 '젠더 비평적(gender-critical)'이라기보다는 '여성'의 범주로부터 트랜스여성을 분리하고 싶어하는 '트랜스 배제적(trans-exclusionary)'인 입장"이라고 분석한다.[27] 나는 이들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젠더-본질주의를 통해 여성 내 차이를 소거하고 여성을 생물학이라는 이데올로기를 통해 일반화하며 자신의 경험을 오직 성별 문제에 귀속시키는 것은 상대적으로 특권적인 위치의 여성들의 문제만을 '여성 문제'로 대표하도록 하는 효과를 만들어냄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러한 젠더-본질주의에 따르면 여성들이 경험하는 젠더를 구성하는 차별과 폭력의 다층성은 드러나기 어렵고 피해는 선별되어 일반화된다.

---

25) 다음의 연구들은 성별이 사회관계를 조직화하고 개별 행동을 조정하는 일차적 문화 프레임이라는 관점 속에서 젠더 본질주의적 태도가 어떠한 사회적 행동과 조직 구조를 만들어내는지 분석하고 있다. Cecilia L. Ridgeway, "Framed before we know it: How gender shapes social relations," *Gender & Society* 23, 2009, pp.145-160; Paula England, "The gender revolution: Uneven and Stalled," *Gender & Society* 24(2), 2010, pp.149-166.

26) 김보명, 「혐오의 정동경제학과 페미니스트 저항: <일간 베스트>, <메갈리아>, 그리고 <워마드>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34권 1호, 한국여성학회, 2018, 20쪽.

27) 나영, 「지금 한국에서, TERF와 보수 개신교계의 혐오선동은 어떻게 조우하고 있나」, 『문화과학』 제93권, 문화과학사, 2018, 56쪽.

젠더-본질주의는 여성들의 삶이 어떤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현실 속에서 구성되고 있는지 고려하지 않고 강박적으로 여성들을 하나의 범주로 묶으려고 시도하기 때문이다. 한국 여성과 예멘 여성 모두 예멘 남성에 대한 (잠재적) 피해자로 박제화되어 예멘 남성의 한국 추방이 주장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것은 종종 백인 여성 주류 페미니즘의 모습으로 드러나거나 유색인 남성으로부터 유색인 여성을 구하고자 하는 백인 남성 중심의 보편적 인권담론에 포섭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젠더-본질주의는 주변화된 여성들의 삶을 사소화하여 이들을 소외시키고 예속을 재강화하는 기제로 사용된다. 특히 이러한 젠더-본질주의를 통해 끔찍한 폭력의 피해자로서의 여성의 문제를 고발하기 수월하지만, 규범적 사회관계가 내재한, 소위 '정상성'이 가진 문제를 드러내기는 어렵다. 그것은 (보편적) 인권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여성에 대한 폭력, 소수자 박해, 민중 억압에 도전할 논리를 제공하지 못한다. 인간의 범주는 자연적인 범주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항상 경합해온 범주라는 것을 떠올려볼 때 인권이라는 개념 역시 자명한 것이 아니라 추구하고 쟁투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젠더-본질주의 경향이 확산되는 2015년의 시간성은 페미니즘의 신자유주의적 전환과 관련을 맺는다. 복잡한 현실을 구성하는 연대를 거부하고 (사실 불가능한 가정임에도) "오직 여자만 챙기는" 페미니즘은 가장 즉각적인 승리를 기원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동시에 이 시간성은 보수, 극우 혐오세력이 퀴어문화축제가 열린 서울시청광장에 집단으로 모습을 드러낸 기원적 시점이기도 하다.[28] 이러한 시간성 속에 트랜스젠더, 성소수자를 배제하며 '진짜 여자만 챙기겠다는' 페미니즘은 퀴어포비아와 공명하는데, 결국 이것이 성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적 전략이라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빠르게 성공에 도달하려는 전략은 결국 가장 거추장스러운 경계적 존재들을 도려내는 일로부터 시작된

28) 심사위원3은 2015년의 시간성을 혐오세력이 등장한 시간과 교차시켜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었다. 두 페이지에 걸쳐 세심한 조언을 아끼지 않은 심사위원3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때 계급, 지역, 인종, 연령, 장애 등의 요인을 통해 '거추장스러운 경계적 존재'는 언제든 새롭게 만들어질 것이다. 이에 나는 어느 발표에서 최근의 젠더-본질주의적 페미니즘 활성 담론에 대해 "성공이라는 실패"라 칭하며 비평한 적 있다. 이질적인 타자를 선별하고 추방하여 (사실 불가능한) 단일의 문제 설정을 통해 균질적 내부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승리를 달성하고자 하는 실천은 결국 내부를 정의하는 힘이 외부에 있음을 천명하는 일에 불과하다. 이러한 성취는 외부에 의해 정의된 균질적 내부의 예속성을 강화하는 또 다른 억압적 기제로 사용될 수 있기에, 우리는 성공 이후의 성공을 위한 페미니즘을 모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3. 『여성혐오를 혐오한다』와 혐오의 병리화

앞서 밝혔듯 우에도 치즈코의 『여성혐오를 혐오한다』는 이러한 2015년의 시간성에 속하는 책이다. 그는 이 책을 통해 한국에서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퀴어 이론가 이브 세즈윅(Eve Sedgwick)의 이론을 활용하여 여성혐오(misogyny) 개념을 널리 알렸다. 이 책에서 우에노 치즈코는 이브 세즈윅의 '여성혐오-호모소셜리티-호모포비아'의 트라이앵글을 적용하면서 여성혐오적 현상을 분석한다. 퀴어 페미니스트 엘리자 스타인복(Eliza Steinbock)에 따르면 2물결 페미니스트들을 통해 "미소지니"는 가부장제나 성 차별주의로 언급이 되었을 견고한 여성의 예속을 조망하는 중요한 용어가 되었다. 역사적이면서 동시대적인 미소지니스트들의 관행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페미니스트 저술의 핵심적 특징으로 여전히 남아있는데 이는 여성을 배제한 재산법 및 투표법, 마녀사냥, 모계 친족관계의 근절, 정조대와 같은 훈육 도구의 사용, 피임 및 낙태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 성적 권리를 위한 투쟁을 포함한다.[29] 그리고 이브 세즈윅은 이러한 2물결 페미니스트들의 미소지니 담론에 역사적 시간성을 입

혀 그것의 사회적 작동 방식을 정교화한다.

이브 세즈윅은 1985년『두 남자 사이: 영문학과 남성의 동성사회적 욕망 (Between Men: English Literature and Male Homosocial Desire)』이라는 책을 통해 18-19세기 영문학에서 나타난 남성(신사)들 간의 유대를 분석한다.[30] 이 시기 영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남성의 여성과의 관계는 사실은 또 다른 남성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이 두 남자 사이에는 동성애적(homosexual) 욕망과 구분이 어려운 동성사회적(homosocial) 욕망이 내재해 있다는 것이 논의의 핵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이 서로를 승인하며 유대적 관계를 맺는 동성사회성(homosociality)이 동성애(homosexuality)와 구분되는 점은 그것이 필연적으로 동성애혐오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신사들의 유대적 관계는 비록 외연 상 동성애와 구분되지 않을지라도 남성 동성애자와 자신을 구분하고 거리 두는 혐오의 집단적 실천을 통해 오롯이 유지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동성사회성은 여성혐오를 동시에 필요로 하는데 남성들은 두 남자 사이에 여성을 놓음으로써만 서로의 욕망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여성은 남성들의 사회성을 가능하도록 하고 유지시키는 촉매제이자 매개물인 것이다. 박이은실의 분석에 따르면 세즈윅은 "'동성애'와 '동성애혐오'가 역사적 구성물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견지"하고 "페미니즘과 동성애혐오 반대는 같은 것이 아니며 이들 사이의 동맹 또한 자동적인 것이거나 초역사적인 것이 아님을 지적한다."[31] 바로 이렇게 역사적 시간성을 경유한 '여성혐오-호모소셜리티-호모포비아'의 트라이앵글은 여성혐오를 단독으로 극복할 수 없음을 설득하면서 우리 사회의 얽혀 있는 억압의 구조를 실체화

29) Eliza Steinbock, "Misogyny", *Keywords for Radicals: The Contested Vocabulary of Late-Capitalist Struggle*, Kelly Fritsch, Clare O'Connor, A. K. Thompson (eds.), AK Press, 2016, p.265.

30) Eve K. Sedgwick, B*etween men: Male homosocial desire and English literature*, New York: Columbia UP, 1985.

31) 박이은실,「퀴어 이론가: 이브 코소프스키 세즈윜」,『여/성이론』제30호, 도서출판 여이연, 2014, 143쪽.

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연대의 전략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이브 세즈윅이 분석하는 18-19세기는 자본주의의 여명기로 이 시기 영문학의 정전을 집필하고자 한 많은 남성 문인들은 사실 자본주의적 리터러시를 체득하지 못한 '무질서한' 시민들을 교육하고자 수많은 '교훈적' 문학작품을 집필하기도 했다.[32] 다시 말하자면 이러한 '여성혐오-호모소셜리티-호모포비아'의 트라이앵글은 물론 그 원형적 면면이 현대까지 지속적으로 작동되긴 하지만 동성애 정체성이 사회적 연대성을 통해 '긍정'되기 이전인 18-19세기의 시간성 속에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이브 세즈윅의 이론을 통해 현대 일본 사회를 설명하고자 하는 우에노 치즈코의 설명 방식이다. 우에노 치즈코는 "호모소셜리티는 여성혐오에 의해 성립되고 호모포비아에 의해 유지된다(37)"는 설명을 그녀의 저작을 통해 잘 전달하고 있으면서도 이와 같은 혐오의 트라이앵글을 시공간을 초월하는 질서로 설명하곤 한다. 또한 여성혐오를 인종화의 문제(46-50), 혹은 여성성을 기호로 환원하는 문제로 설명한다든가(13), 여성혐오가 남성에게는 '여성 멸시', 여성에게는 '자기 혐오'로 나타난다는 젠더 정치의 역동에 대한 설명은 탁월하지만(13), 이러한 인종 개념의 상대성이나 여성 내부의 차이 문제를 소홀히 하는 젠더-본질주의적 경향을 드러낸다. 결과적으로 현실 정치에서 다층적인 방식으로 드러나는 갈등과 경합의 문제가 사소하게 다루어진다. 대표적인 예시가 한국의 '김 군', 혹은 2016년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의 가해자를 떠올리도록 하는 아키하바라 무차별 살상사건의 범인 K군에 대한 분석이다.

우에노 치즈코는 2008년 6월의 한가한 주말 아키하바라에서 사람을 죽

32) "로빈슨 크루소"를 쓴 다니엘 디포(Daniel Defoe)가 대표적이다. 그는 자본주의적 신용이 확대된 금융적 전환의 국면에서 신사들이 자신의 재무적 신용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신용부인 다루기(Mastering Lady Credit)"라는 일종의 포르노그래피적 글을 통해 교활한 여성을 업신여기되 결국 굴복시키는 신사의 태도와 행위 양식을 설파하기도 했다. "신용부인 다루기"에 대한 여성주의적 분석으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할 수 있다. Marieke de Goede, "Mastering 'lady credit'", *International Feminist Journal of Politics* 2(1), 2000, pp.58-81.

이겠다는 예고 메시지를 온라인에 올린 후 미리 준비한 등산용 나이프로 행인 7명을 살인하고 16명에게 중상을 입힌 K군을 “비인기남”으로 명명하면서 그가 자신의 열등한 외모 때문에 여자를 소유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에노 치즈코는 K군의 이러한 생각과 행동을 전형적인 여성혐오 범죄로 설명하고 사실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은 여성에게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 집단의 정식 멤버로 인정되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75). 이는 여성을 매개로 남성 간의 연대가 이루어진다는 남성의 호모소셜에 대한 욕망을 설명하는 설득력 있는 분석이다. 하지만 우에노 치즈코는 “토오리마(거리의 악마)”로 불리는 그가 “나는 2D 이외엔 여자에 관심 없다”고 말한 것으로 인해 일본 사회에서 ‘오타쿠’에 대한 혐오와 병리화가 확산된 사실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우리는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당시 그 사건의 여성혐오적 성격에 대해서는 한마음으로 주목하고 분노했음에도, 이러한 사건이 ‘조현병’ 환자들에게 대한 차별과 혐오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점 역시 조심스럽게 경계했다. 여성혐오가 여성성을 기호로 환원하고 그것에 본질적인 속성을 부착하여 인종화, 자연화하는 기제라고 한다면 이러한 인종화, 자연화는 사회적으로 손쉽게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 되어 온 집단에게도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그는 여성혐오의 동학을 ‘여성혐오-호모소셜리티-호모포비아’의 트라이앵글을 통해 설명함으로써 가부장제의 거시적 사회관계를 분석하는 보편주의적 이론의 설득력을 만들어냈으나 현실의 차별 문제와 구체적 개인의 분석에서 저자 자신이 여성 외의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또 다른 배제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책『여성혐오를 혐오한다』에서 가장 문제적인 대표적인 지점은 바로 그가 남성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여성, 혹은 크로스드레서 남성의 사례를 가져오는 경우이다. 책 전반에 걸쳐서 호모포비아는 이론적 수준에서 혐오의 트라이앵글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지만 이에 대한 정치한 분석은 생략되어 있다. 외려 교묘하게 남성 동성애자들의 성적 실천을 “소년애”와 같은 범죄 상황과 느닷없이 교차시키고 ‘여장’ 취미를 가진 남성 사

례를 통해 남성의 병리적 자기혐오를 설명하면서 이를 여성혐오의 트라이앵글과는 독립적인 사례로 다루는 경향이 발견된다.

> 남자들 마음 속에서는 '여자 없이 어떻게 안 될까' 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때문에 이성애 중심의 근대인에 비해 소년애를 칭송했던 고대 그리스인들의 여성 혐오가 더욱 철저하게 보이는 것이다. **남성성을 미화하는 동성애자들에 대해 내가 느끼는 불신은 바로 여기에서 유래한다**(16, 강조는 인용자).

> 저는 28세의 동성애자입니다. 아니, (…) 성인 남성이 아니라 아직 어른이 되기 전의 소년을 좋아합니다. (…) 요즘에는 길거리를 걷다가 제 취향의 소년이 눈에 띄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뒤를 쫓거나 말을 걸려고 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곤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소름이 오싹 돋습니다. 대체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정말 애들을 건드리기 일보 직전입니다**(86, 강조는 인용자).

여성혐오의 트라이앵글에서 남성 동성애자는 남성들의 동성사회적인 유대 관계를 철저하게 이성애적인 것으로 만드는 데 필수적인 기피와 혐오의 대상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책에 등장하는 실체를 가진 남성 동성애자들은 모두 기피되거나 혐오스러워할 만한 이유가 있는, 다시 말해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물들로 제시된다. 다시 말해 우에노 치즈코는 여성혐오의 트라이앵글이라는 이론적 프레임을 소개하고 여성들이 혐오의 대상으로 "두 남자 사이에" 배치되는 원리를 탁월하게 그려내고 있으나 막상 현실 분석에 있어서 대립을 구조화시키는 변수를 분리적으로 이원화하여 성별 관계를 본질적인 것으로 다루고 있다. 동시에 구조적으로 내재된 동성애혐오를 저자가 반복한다.

대표적으로 위의 두 인용문에서는 동일하게 "소년애" 문제가 다루어진다. 저자는 '소년애'에 대해 "남성이 여성화되는 위험을 저지르지 않으면

서 동성애 행위를 실천하는 유일한 방법(104-105)”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이러한 소년애라는 문제적 취향을 가진 존재들은 이 책 속에서 모두 ‘남성 동성애자’라는 정체성을 가진 이들로 제시된다. 만약 그가 소년애를 범죄적 실천으로 본다면 가해자가 남성 동성애자일 필요, 인과관계는 없다. 만약 그가 “애들을 건드리기 일보 직전”이라는 성폭력 상황을 문제 삼길 바란다 해도 마찬가지이다. 남성동성사회에서 남성 간 성폭력 사건의 원인은 동성애가 아니라 동성애혐오증으로, 이는 남성 간 성폭력 사건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이성애자 남성의 동성애자 남성(때로는 ‘계집애’ 같은 남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에서 원인으로 작동한다.[33]

위 (16)의 인용문에서 우에노 치즈코는 “남성성을 미화하는 동성애자들”에 대해 자신이 느끼는 개인적 불신을 설명하고 있으나 ‘남성성을 미화하는’ 존재들을 설명하기 위해 ‘동성애자’라는 조건은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정보로, 이미 동성애혐오적이다. 여성혐오의 트라이앵글은 개인이 가진 선한 마음, 악한 마음을 판별하는 구조식이 아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18-19세기 서구 문명의 근간으로 상상되는 이성애적 관계와 규범성이 실은 남성들 간의 사회적 결속 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한 부수적인 관계임을 설득하는 이론이다. 두 남자 사이에서 촉매제와 매개물로만 존재하는 여성이 사실은 거추장스럽다고 생각해서 “여자 없이 어떻게 안 될까”를 “마음 속으로” 고민하는 남성들이 있다면 그들은 아마도 더욱 손쉽게 촉매제와 매개물로 사용하고 버릴 수 있는 여성(대표적으로 ‘매춘 여성’)을 ‘두 남자 사이’의 존재로 선별할 것이다. 하지만 애초 성적 상호관계에 여성이 개입되지 않은 남성 동성애자들은 이성애중심적 사회에서 언제나 결핍과 과잉을 동시에 가진 병리적 존재들로 상상되고 있는데 이들을 다시금 “여자 없이 어떻게 안 될까”를 상상하는 존재로 그려낸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차별적 관점을 그대로 재생산한 것이다.

---

33) 다음의 연구에서 저자는 남성 간 강간 사건에서 가해자 대부분이 이성애자 남성이라는 점을 주요하게 지적한다. Michael Scarce, *Male on male rape: The hidden toll of stigma and shame*, New York, NY: Insight Books, 1997.

또 다른 (86)의 인용문은 후시미 노리아키의 『욕망 문제』에 등장하는 한 상담 편지의 내용이다. 후시미는 이 편지를 받고 '그와 나 사이에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 것일까'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의 아픔이 전해져왔기에 이해와 동정을 표했다고 한다. 나아가 후시미는 "성적 소수자 운동 속에 소년애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유감을 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우에노 치즈코는 '소년애'라는 용어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서 "페미니즘이 성적 장난을 '성추행'으로, 사랑 싸움을 '가정 폭력'으로 바꿔 부르게 한 것처럼" 소년애를 '아동 성학대'로 바꿔 부를 수 있어야 한다고 충고한다. 소년애라는 용어, 사용법에 대해 문제제기하고자 하는 저자의 시도에는 전혀 이견이 없다. 다만 자신의 병리적 성욕을 고백하고자 하는 이는 왜 다시 남성 동성애자의 사례인 것일까. 앞선 인용문에서 저자가 고대 (이성애자) 그리스인들의 소년애 문제를 지적했던 방식으로 이 사례 역시 성인 남성과의 관계는 거부하되 소년과의 관계만을 추구하는 이성애자 혹은 성정체성이 표지되지 않은 소위 '일반' 남성의 사례로 다루었어야 더욱 적절했을 것이다.

> 남성 신체에 대한 자기 자기 혐오는 탈신체화, 즉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이탈 소망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그 욕망은 여성 신체에 대한 동일화 소망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다. 어쩌면** 여장 취미는 '이상화된 신체를 향한 자기 동일화 소망'에 지나지 않으며 '젠더의 벽을 넘고자 하는 소망'은 아닐지도 모른다. 'M군이 어린 소녀의 신체를 절단하였을 때 그에게 존재하고 있던 것은 소녀가 되고 싶다는 소망이었다'는 오쓰카 에이지의 해설을 읽으며 **그 근거 없는 판단에 알 수 없는 리얼리티를 느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299-300, 강조는 인용자).

참고로 남성 동성애자들은 '남자가 아닌' 자, '여자 같은 남자'로서 오랫동안 여성화되어 왔다. 남성 동성애자들은 여성 혐오를 극복한 사람들일까. **'남성이지 않게 됨'은 동성애자가 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다. 동성애자 남**

> **성이 여성 혐오를 극복한 남성인지 어떤지는 모른다.** (…) '게이와 페미니즘은 같이 투쟁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나는 다음과 같은 답을 내린 적이 있다. 'Yes, but 여성 혐오적이지 않은 게이들이라면 가능하다(303, 강조는 인용자).'

저자는 '남성의 자기혐오' 사례도 다루고 있다. 우에노 치즈코는 성별 이원론적 근대 사회관계를 만들어낸 여성혐오의 트라이앵글을 이론적 자원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정작 "남성에게도 자기혐오는 있다. 틀림없이 그럴 것이다"라며 '남성의 자기혐오'를 결국 남성 동성사회성이라는 구조를 매개하지 않는 주관적이고 임의적인 느낌의 예시로 가져온다. 심지어 남성들의 자기혐오는 주체의 형이상학에 의해 신체의 주인인 주체-남성이 자신의 신체를 혐오하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자기혐오로 고통받는 대표적 인물로 또다시 "여장취미"를 가진 남성을 사례로 소환한다. 결국 그는 여성혐오의 트라이앵글에서 호모포비아라는 축을 간과함으로써 성 정치의 궤적을 몰역사화하고 여성혐오 문제를 마음의 문제, 개인적 자질, 심리학, 병리화의 문제로 축소해버렸다. 이러한 진단 속에서 사회운동으로서의 페미니즘은 의미를 획득하지 못한다. 결국 우리는 여성해방을 위해 명상이나 마음수련을 거치거나 혹은 정신과에서 약물 처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 개인이 죄 없는 타인에게 무차별적 혐오감을 갖는 현실 정치는 결국 마음의 문제라는 개인성의 몰역사적 문제 설정은 손쉽게 탈정치화로 이어진다. (299-300)의 강조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듯 저자는 동성애자 남성을 향한 호모포비아를 어떤 방식으로 여성혐오의 삼각형에 위치시켜야 하는지 고민 없이 손쉽게 여성혐오를 이성애적 남녀 규범성에 배태된 사회성의 문제를 넘어 개인적으로 극복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문제로 분류한다.

(303)의 인용에서 여성혐오적이지 않은 남성 동성애자들이 페미니스트와 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혐오와 호모포비아는 동시적으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호모포비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여성혐오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과 반드시 함께 연대해야만 한다. “남성이지 않게 됨”이 동성애자가 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남성 동성애자(때로는 트랜스젠더 여성, 때로는 크로스드레서 남성)로 정체화하고 이러한 삶을 결심하는 것은 곧 남성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호모포비아에 적극적으로 맞서는 여성들이 결국 여성을 여성의 위치에 두려는 미소지니로부터의 해방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주체와 객체의 사회적 관계를 정의하는 것으로부터 실천(praxis)이 시작된다면 여성해방의 실천은 응당 반동성애혐오와 결합하지 않을 수 없다.

반대로, 남성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 여성을 혐오하는 여성들, 이들에 대한 혐오표현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은 동성애혐오적 측면에서도 문제적이지만 가부장제가 이성애중심주의와 함께 작동하는 것을 간과한다는 점에서도 문제적이다. 오직 성별만이 유의미한 권력 관계라고 가정하는 이들은 혐오표현을 통해 남성 동성애자들을 직접 차별할 수 있다는 것을 묵인하고 나아가 용인한다. 가부장제의 진짜 문제는 그것이 이성애중심주의, 인종주의 등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서 정상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남성 동성애자와 같이 배제된 존재들를 병리화하는 것은 정상화를 명목으로 한 차별을 손쉽고 광범위하게 옹호한다. 미국의 퀴어이론가 자스비어 푸아(Jasbir Puar)는 이라크 전쟁 도중 아부그라이브 수용소에서의 미군에 의한 무슬림 남성에 대한 성 고문 장면을 담은 사진, 특히 린디 잉글랜드라는 여성군인 가해자의 잔학행위 사진에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은 것에 대해, 여성 고문자라는 존재가 우리를 멈칫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예외적인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비나 다스(Veena Das)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폭력이 일종의 사회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여성들은 폭력의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폭력의 가해자인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무수한 방식으로 실제 폭력의 형태와 연결되어 있고 이득을 얻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폭력의 경제(economy of violence)는 어떤 여성도 엄격히 내부자나 외부인이 아닌 순환 시스템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성은 폭력의 표적일 뿐만 아니라 폭

력의 행위자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34]

결국 '남성-퀴어'의 존재를 통해 여성혐오의 병리화를 두드러지게 만드는 논리에서 우에노 치즈코가 '정상적인 것'으로 상정한 사회적 관계는 무엇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우에노 치즈코의 현실 분석에서 여성혐오는 철저하게 병리적이고 기형적인 것이다. 하지만 이브 세즈윅은 신사들의 숙녀를 다루는 규칙, 신사들을 위한 지침 그 자체에 여성혐오가 이미 기입되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결국 우에노 치즈코는 여성혐오라는 문제틀을 통해 이성애의 규범성, 성별화된 사랑이 내재한 차별과 폭력의 문제에는 가 닿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한국 사회에서 페미니즘 대중화의 시간성에서 두드러지는 젠더-본질주의를 강화한다. 여성들이 경험하는 폭력과 피해의 관계성과 맥락성이 고려되기보다 여성과 남성, 남성 동성애자의 존재가 본질적으로 피해와 가해의 조건을 내재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한국의 젠더-본질주의의 대중화에 우에노 치즈코가 책임이 있다는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 다만 18-19세기 영문학에 등장한 신사들의 관계 맺기 방식이 일본 현대 사회의 "여성을 싫어함(女ぎらい)" 현상을 분석하는 것에 바로 대입되고, 또 "일본의 미소지니(ニッポンのミソジニー)"를 분석한 책이 한국에서 "여성혐오를 혐오"하는 지침서로 번역되고 수용되는 번역 실천의 과정에 내재한 본질화, 보편화의 시도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4. 1995년의 시간성과 지식의 "시기상조"론

우에노 치즈코는 2000년대 초반 한국의 문화인류학자 조한혜정과의 서신교환에서 자신의 책 『내셔널리즘과 젠더』의 영어판이 간행되었다면서, 영어판 간행 당시 "일본의 경우…"라는 제목을 붙이자는 제안을 거절한

34) Jasbir Puar, *Terrorist assemblages: Homonationalism in queer times*,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7, pp.89-90.

소식을 전한다.

> 어떤 연구에든 '한국 사회'라든가 '일본의 경우' 같은 말을 붙이게 되면 지역 연구의 하나로 특수화되어버려, 아무도 뭔가 보편적인 메시지를 취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구미권의 출판 저널리즘은 아시아에서 사상과 사회과학을 배울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는 듯합니다. 문학의 영역에서는 무라카미 하루키나 요시모토 바나나 등은 메이드 인 재팬(made in Japan)의 이국취미(exoticism)를 넘어서 번역되어 있고 B급, C급이 문학작품도 바지런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 일본문학사를 영어권에서 번역 문헌만으로 강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다른 한편 근대 일본사상사를 강의하는 데는 번역 문헌을 찾을 수 없어서 고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35]

식민주의적 지식 분업 체계에 의해, 서구에서 생산된 연구는 이론이 되지만 아시아에서 생산된 연구는 사례가 된다. 우에노 치즈코는 서구와 일본의 번역 관계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의 경우…"를 붙일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의 문제는 일본과 한국의 번역 관계를 통해 살펴본다면 서구와의 경우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서구 원전의 번역이 주로 일본어 판본을 경유해 이루어진 점을 지적하며 김욱동은 한국의 근대는 '번역의 근대'라기보다 "중역(重譯)의 근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36] 페미니즘 지식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1980년대 번역서를 통해 한국 여성해방운동의 탈식민성을 분석한 허윤의 연구를 참조하면, 당시 한국에서 출간된 젠더이론 번역서 중에 다나카 미치코, 마츠이 야요리 등의 일본 페미니스트들의 저작이 눈에 띈다. 허윤에 따르면 이들의 저작은 "서구에서 출발한 여성해방이론을 아시아 국가인 일본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화두인" 책들로,

---

35) 우에노 치즈코·조한혜정, 사사키 노리코·김찬호 역, 『경계에서 말한다』, 생각의나무, 2004, 154쪽.
36) 김욱동, 『번역의 미로』, 글항아리, 2010, 55쪽.

“학습자인 대학생들이 아시아 여성으로서 어떠하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계기를 제공한다”고 분석된다.[37] 이처럼 일본어를 경유한 “중역의 근대”의 문제나, 서구 지식이 일본을 경유하면서 선별되어 ‘아시아적 지식’으로 변이되어온 한국의 지식문화 역사를 상기했을 때 한국 지식문화의 일본 의존성의 문제 역시 포스트식민주의 문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렇다면 우에노 치즈코의 『내셔널리즘과 젠더』가 영어로 번역되었을 때 “일본의 경우…”가 붙지 않은 것과 『여성을 싫어함: 일본의 미소지니』의 한국어 번역본에 “일본의…”가 붙지 않은 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된다. 전자는 보편에의 ‘도전’이 되지만 후자는 보편론의 ‘답습’이 되기 때문이다.

앞서 소개했듯이 우에노 치즈코의 책이 한국에 처음 번역된 때는 1991년이다. 『90년대의 아담과 이브』라는 책에서 그는 유럽과 미국, 일본의 여성들이 직면한 현실을 소개했다.[38] 다음은 1991년 11월 21자 신문에 실린 이 책에 대한 소개이다.

> 급속히 바뀌어가는 유럽과 미국, 일본의 여성 현실을 소개한 책이다. 전선에 나가는 미국 여성병사, 주말부부 중심의 미국 문화와 단신 부임식의 일본 문화, 늘어나는 여성 중역들이 ‘경계선을 넘어선 여성들’이라는 제목의 1부에 실려 있다. 급증하는 이혼, 어머니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지는 자녀양육권, 이런 것들이 미국 남성들 사이에 남성운동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이탈리아, 독일, 미국, 스웨덴에서는 여성의 사회활동과 피임으로 인한 출생률 저하가 이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변화하는 여성 상황은 여권신장과 여성운동의 개념을 조금씩 바꾸어 놓고 있다. **우리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이 책 내용은 한차례 여성운동 바람이 몰고간 사회에 살고 있는 여성들의 삶의 허실을 보여준다**(강조는 인용자).[39]

---

37) 허윤, 「1980년대 여성해방운동과 번역의 역설」, 『여성문학연구』 제28권, 한국여성문학학회, 2012, 246-247쪽.

38) 우에노 치즈코, 이재호·야노 유리코 역, 『90년대의 아담과 이브』, 동풍, 1991.

우에노 치즈코는 여성운동의 '선진국' 일본의 여성학자로 "우리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고 여겨지는 서구 선진국 여성들의 변화하는 삶을 소개하면서 처음 한국에 소개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식으로 번역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한국 여성운동의 역사는 물론 한일 여성연대의 역사를 너무나 손쉽게 무력화시킨다. 한국에선 이미 1977년에 대학 내 '여성학'이라 이름 붙은 교양과목이 개설되었고 1980년대 전국 다수의 대학 내에 안착했다. 허윤은 1983년 여성평우회, 1987년 여연 다수의 여성운동 조직 출범을 통해 "사회운동으로서 여성해방운동이 본격화되는 시기"로 1980년대를 정의한다.[40] 이러한 토대 위에서 1991년은 무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김학순이 공론장에 등장한 해이기도 하다. '한국이 더', '일본이 더'와 같은 이야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한국에 소개된 25여 권의 번역서 가운데 단 한 권도 "일본의…"라는 제목이 붙지 않은 채 출간된 우에노 치즈코의 저작물을 통해 번역 관계의 정치학을 살펴보고자 할 뿐이다.

『여성혐오를 혐오한다』의 "한국어판을 내며"에서 우에노 치즈코는 20년 전 한국의 한 출판사가 그녀의 『스커트 밑의 극장(1989)』을 출간하고 싶어 해서 한 페미니스트에게 번역을 의뢰했지만 그 페미니스트는 책을 읽고 "시기상조"라 답했다는 일화를 전한다.[41] 그리고 20년이 지나 우에노 치즈코는 "한국 사회는 변모에 변모를 거듭했다"고 평가한다. 특히 "인터넷의 보급과 활용은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앞선다(6)"고 상찬한다. 그는 20년 전에는 "시기상조"였음에도 20년이 흐른 뒤 마침내 "동시대를 살아가는 두 사회의 경험이 과연 어느 정도로 오버랩되는지 독자들에게 물어보고 싶다(9)"는 바람을 전한다. 1991년 번역 출판된 『90년대 아담과 이브』에서부터 2012년 번역 출판된 『여성혐오를 혐오한다』까지 우에노

39) 한겨레, 「유럽·미국·일본의 여성 현실 소개 〈90년대의 아담과 이브〉」, 『한겨레』, 1991.11.21.
40) 허윤, 앞의 글, 242쪽.
41) 우에노 치즈코, 장미희 역, 『스커트 밑의 극장』, 논장, 1991.

치즈코의 서적과 그녀가 전달하는 지식은 한국 페미니즘 선진화의 바로미터의 역할을 자처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에노 치즈코의 문제라기보다 한국의 근대가 “중역의 근대”였듯, 일본이 한국에서 서구를 향한 창등으로 의미화되는 방식으로 한국 지식문화장이 조직화된 결과일 것이다.

하지만 각 사회에서 담론적으로 몰두하는 문제가 다를 뿐, 이를 일직선 위의 발전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러한 척도에 의거해 각 지역의 문명적 격차를 상정하는 “시기 상조”라는 말은 지식문화의 문제와 관련해서 식민주의적 입장을 대변한다. 동시에 『여성혐오를 혐오한다』에서 저자는 서구 학자의 이론을 번역, 소개하는 역할을 자처하지만 결국 호모포비아의 축을 삭제하며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이론으로 전유하며 젠더본질주의 분석에 머물고야 말았다. 이러한 젠더본질주의 역시 여성혐오를 실제적으로 작동시키는 여성 내부 차이와 다양한 소수자들의 문제를 간단히 처리하면서 결과적으로 특권적인 여성들의 문제만을 현안으로 상정하는 지적 식민주의의 문제 그 자체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론은 이제 드디어 일본과 동시대에 속한다고 가정되는 2015년 한국에 당도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며 젠더-본질주의적 담론장을 이질감 없이 함께 형성하고 있다. 이에 바로 이런 식민주의의 시간성을 매핑하기 위해 1995년으로 잠시 거슬러 올라가 보고자 한다. 이는 세계사적 시간성을 통한 비판적 시각으로 페미니즘 지식문화의 동아시아적 유동과 변화를 재고하기 위한 시도이다.

1994년 한국에 번역 출간된 우에노 치즈코의 『가부장제와 자본주의』는 1995년의 시간성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42] 이 책은 1부 ‘이론편’에서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의 주요 이론들을 소개하고 2부 ‘분석편’에서 일본 사회의 발전경로를 분석한다. 이 책의 역사 후기에서도 ‘한국의 척박한, 아무것도 없는 페미니즘 담론장에 도착한 소중한 지식, 소중한 책’이라는 클리세가 반복된다. 역자 이승희는 “이 주제에 관한 한 우리나라 페미니즘의 연구는 빈약함을 넘어 거의 생산 자체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42) 우에노 치즈코, 이승희 역,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녹두, 1994.

라면서 “한국의 1980년대”를, 혹은 그 시간성을 살아간 페미니스트들에 대해 “페미니즘 이론의 다양한 입장들이 펼쳐지고 그에 대한 토론으로 성숙해 간 것이 아니라 막바로 실전에 투입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평가한다.[43] 하지만 1987년 3월, 21개의 진보적 여성단체가 모여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발족하였고 1995년은 전국의 대학에서 성에 대한 담론이 폭발적으로 확산되었던 때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진단은 한국 페미니즘의 현실을 소거한 것이다. 이 책이 가진 무엇보다 큰 문제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라는 이원론적 축을 통해 여성에 대한 차별을 고안해낸 거시 정치경제학을 심지어 일본의 경제발전 과정을 통해 설득, 분석함에도 ‘전쟁’ 혹은 ‘전쟁과 여성’에 대한 분석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한국에서는 일본을 통해 아시아를 사유해왔다는 비판적 자기반성이 회자되지만 정작 세계대전 시기와 정치경제의 근대적 전환기가 착종된 아시아에서 일본은 스스로의 역사를 초거시적인 보편사의 위치에 놓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의 지식을 통해 아시아를 학습한다는 말은 사실 “중역의 근대”를 떠받치는 이데올로기적 환상일지 모르겠다.

중요한 것은 1995년은 베이징에서 여성대회가 열린 해이자, 한국과 아시아에서 아시아여성학이라는 이름의 지식장이 만들어진 해라는 점이다. 베이징에서 열린 4차 UN 여성회의(Women′s Conference)는 빈곤, 교육, 보건, 폭력 등 전 세계 여성을 둘러싼 문제 해결을 위한 진보적인 청사진을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성에 대한 전통적 역할에 대한 도전 없이 여성들을 발전의 동력으로 수단화한 WID(Women in Development) 정책은 1995년 이후 발전 그 자체에 내재한 성차별적 요소를 문제시하는 GAD(Gender and Development) 전략으로 수정되었고 이러한 기조에 따라 전지구적으로 젠더 주류화 전략이 추진되었다. 그리고 동시에 1995년 한국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학센터를 중심으로 아시아여성학이 처음 닻을 올리기도 했다. 다양한 아시아여성학 프로젝트가 시작된

43) 앞의 책, 317-318쪽.

결과 2005년 아시아 8개국 여성학 교과서가 발간되었고 2007년 아시아여성학회가 창립되어 2016년 네 번째 학술회의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지난 20년 간 아시아여성학은 이론이자 실천으로서의 그 학문적 기틀을 다져왔다. 이때의 아시아여성학은 지리적, 물리적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 여성학을 넘어 아시아여성학자들의 지식 공동체를 중심으로 새롭게 갱신되고 있는 여성주의 이론이자 개념이고, 국가의 경계를 넘어 연대하고 저항하며 지역적/지구적 변화를 만들어가는 실천으로 정의된다.[44]

그 이전 한국에서 1980년대 여성학 지식이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확산된 이래 여러 논쟁이 있었다. 여성학 지식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논쟁과 한국적 여성학의 필요성과 민족담론 비판을 위한 여성학의 필요성 논쟁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1995년 베이징 여성회의를 기점으로 여성주의는 급격하게 제도화되었다. 소규모 여성운동 단체들은 NGO로 변모했고, 여성학 전공자, 여성주의 활동가들은 각종 정책을 만드는 역할에 동원되었다.[45] 이러한 여성운동 제도화 과정을 지나면서 여성을 구성하는 핵심적 문제는 중층적으로 구성된 여성 억압의 문제를 넘어 특정 피해자 여성 집단의 문제로 설득되었다. 제도의 실질적 개입이라는 명목으로 폭력은 '피해를 입은 개인'을 통해서만 증명되었다. 제도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의 연속적 측면을 사유하는 힘, 개인의 고통이 왜 여성의 고통의 문제인지 사유하는 힘이 약해졌다.

이처럼 국내적으로 1995년은 아시아여성학이라는 포스트식민주의적 페미니즘 지식이 닻을 올렸지만 결국 세계화의 깃발 아래 정부와 제도가 한국 여성해방을 주도하게 된 시기와 만나면서 그 담론적 확산은 대중적인 수준까지 진행되지 못했다. 특히 국제적으로 1995년은 국제 투기세력을 중심으로 전지구적 자본주의가 팽창하던 시기이다. 1997년 태국이 고

44) 이상화, 「'아시아'와 '아시아여성학'의 개념화를 위하여」, 『글로컬 시대 아시아여성학과 여성운동의 쟁점』,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학센터 기획, 한울, 2016, 46-74쪽.

45) 김은실, 「여성주의 지식의 생산과 제도화의 정치학」, 앞의 책, 75-102쪽.

정환율제 포기를 선포하면서 그 여파로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에서 통화 위기가 확산되었다. 이후 아시아 각국 정부는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고 강도 높은 금융개혁, 다시 말해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요구받았다. 그렇다면 국내외적으로 1995년을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는 세계화이다. 이때의 세계화는 자본과 금융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이면서 신자유주의를 가속화하는 이데올로기이다. 이는 우리가 포스트식민주의를 사유할 때 한국, 일본 등 공간성을 넘어 세계사적 시간성에 대해 사유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 시기 아시아는 글로벌 자본의 새로운 정치 프로젝트가 지배하는 역사적 시대로 이행했다.

다시 1995년 베이징 여성회의로 돌아가자. 이 회의에서는 세계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포괄적 로드맵이 발표되었는데, 여기에는 각국 정부가 여성 빈민이 급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들에게 신용대출, 저축 등 금융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안이 핵심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 회의에서 당시 미국의 퍼스트레이디였던 힐러리 클린턴의 그 유명한 연설문 “여성인권은 인권이다”가 낭독되기도 했는데, 이 연설에서 힐러리는 무하마드 유누스가 설립한 그라민 은행의 소액대출 프로그램을 “현지의 대단히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 언급했다. 하지만 이후 많은 학자들에 의해 이러한 금융 프로그램은 제3세계 여성들에게 임금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신 이들을 자유로운 금융 소비자로 포섭하여 또 다른 이윤을 내고자 한 자본의 또 다른 전략이었음이 고발되었다.[46]

이와 같은 세계사적 시간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아시아는 “시기상조”의 국가로 박제되어 영원히 서구의 발전을 위해 동원되는 시혜적 공간으로 남을 것이다. 아시아를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말하지만 비판으로서의 아시아를 사유하는 동력은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계가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글로벌 자본주의의 시간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아

46) 대표적인 저작으로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라미아 카림, 박소현 역, 『가난을 팝니다: 가난한 여성들을 착취하는 착한 자본주의의 맨얼굴』, 오월의봄, 2015.

시아 페미니즘의 비판적 인식론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때 비판의 방법은 이데올로기 비판이면서 동시에 사회 비판이다. 일찍이 많은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은 “비판의 무기는 무기의 비판과 결합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젠더-본질주의가 강화되는 2015년의 시간성 속에서 우리는 포스트식민주의적 성찰을 통해 아시아 여성들의 삶을 포획하며 확대되는 글로벌 자본주의 경제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젠더-본질주의 페미니즘에 의해 강화되고 동원되는 아시아 페미니즘을 비판해야 한다. 우리는 문제를 심리화, 병리화, 문명 격차화하는 젠더-본질주의적 인식의 한계를 넘어 여성의 고통을 치유하는 것과 세계의 질서를 문제 삼는 것의 강력한 연관을 드러내야 할 것이다.

5. 비판으로서의 아시아 페미니즘 제안

본고는 우에노 치즈코의 책이 한국에 번역, 수용된 관계를 통해 현실의 젠더-본질주의적 페미니즘이 강화하는 지식의 식민성 문제를 드러내고자 했다. 2015년의 젠더-본질주의적 페미니즘은 1995년으로 대표되는 “시기상조”론, 이를 옹호하고자 한 세계사적 시간성이 고려되지 않은 효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젠더-본질주의적 페미니즘은 지적 식민성을 강화하며, 페미니즘 지식의 식민성은 젠더-본질주의적 시각을 옹호한다.

1995년의 시간성 속에서 여성운동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에서 제도화하고자 한 위로부터의 전략에 의해 아시아는 충분히 사유되지 못했다. 당시 수입된 지식들은 서구를 통해, 일본을 통해 우리와 아시아를 사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었지만 막상 이러한 지식들은 “시기상조”론 속에서 한국과 아시아를 동시대에 속한다고 가정하지 않았다. 나는 “시기상조”로 읽힐 것이라 예상되는 지식에 의해, 또한 그 지식의 포스트식민주의적 성격에 대한 비판적 접근에 이르지 못한 채 2015년을 맞이했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정치를 본질화하는 지식이 소수자 해방을 위한 이정표로 제시되고 있는 아이러니 한 장면이 만들어졌다. 어떤 이들은 소위 '『제국의 위안부』 사태' 이후 그 책을 "획기적"이라고 평가하면서[47] 저자 박유하 구명운동에 나선 우에노 치즈코에 대해 "변절"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그 문제가 단지 개인의 지조 문제가 아니라 포스트식민주의 문제를 성찰하지 못한 페미니스트 지식문화장의 필연적 결과라고 생각한다. 젠더-본질주의적이며 그래서 식민주의적인 지식의 성격으로만 본다면 우에노 치즈코의 입장은 크게 선회한 부분이 없다. 일찍이 박정미와 소현숙 역시 서평을 통해 1999년 번역 출간된 우에노 치즈코의 『내셔널리즘과 젠더』의 보편주의적 젠더 관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48]

1995년은 무라야마 담화가 발표되고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 기금이 발족된 해이기도 하다. 그리고 2015년은 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이 이루어진 해이다. 우에노 치즈코도 (『내셔널리즘과 젠더』의 2012년 개정증보판인) 『위안부를 둘러싼 기억의 정치학』에서 지적하듯 국민기금은 "전후 50주년이자 베이징 여성회의가 개최되기 직전에 국제사회에 대한 일본의 정치적 퍼포먼스로 만들어졌다"고 보통 알려져 있다.[49] 우리가 맞이한 젠더-본질주의로 확증되는 2015년의 시간성은 포스트식민주의적 시각이 고려되지 않은 채 시혜적 문명 격차 담론이 확산된 1995년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우리는 비균질적 공간성을 드러내는 것 이상으로, 혹은 이를 넘어, 한국 여성, 아시아 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동질적인 시간성을 드러내야 한다. 예를 들어 베이징 여성회의에서 힐러리가 이야기 말한 "여성인권은 인권이다"는 1995년이라는 시간성

47) 우에노 치즈코, 「『제국의 위안부』의 탈식민지주의」, 『대화를 위해서: 『제국의 위안부』라는 물음을 펼치다』, 이권희 외 역, 뿌리와이파리, 2017, 247쪽.

48) 박정미, 「여성주의는 민족주의를 초월할 수 있는가?」, 『진보평론』 제5호, 2000, 447-454쪽; 소현숙, 「누가 일본군 위안부였던 여성의 침묵을 강요하였는가」, 『한국역사연구회회보』 제38권, 2000, 15-19쪽.

49) 우에노 치즈코, 이선이 역, 『위안부를 둘러싼 기억의 정치학』, 현실문화연구, 2014, 260쪽.

을 고려하지 않으면 틀린 것이 하나도 없는 말이다. 하지만 1995년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 세계화 시대 혹은 신자유주의 시대라는 역사적 시간성 속에서 이행했음을 이해한다면, 이러한 힐러리의 말은 공허한 말이 된다. 여성회의 몇 달 전 방글라데시를 방문한 힐러리에게 암소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방글라데시 여성들은 힐러리를 동정했다고 하는데,[50] 만약 방글라데시 여성들이 그라민 은행에서 얻은 소액대출로 암소를 구입한 것이라면 이들이 힐러리 앞에서 보여준 자부심은 결과적으로 열등한 것이 될 것이다.

이처럼 관계적 실천으로서의 우에노 치즈코의 번역과 수용의 정치학에서 시작한 이 논문은 자본주의 역사의 보편성에 연루된 젠더화된 아시아의 맥락, 아시아 페미니즘의 재고를 비판적 방법으로 삼아야 한다는 제안으로 마치고자 한다. 이렇게 마련된 지식은 비로소 아시아 각국이 각각의 차이를 통해 마주한 보편적 역사의 시간성에 대한 분석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정치적 저항의 가능성을 고려하는 실천적 지식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우에노 치즈코, 「『제국의 위안부』의 탈식민지주의」, 『대화를 위해서: 『제국의 위안부』라는 물음을 펼치다』, 이권희 외 역, 뿌리와이파리, 2017, 247쪽.

_____, 이재호·야노 유리코 역, 『90년대의 아담과 이브』, 동풍, 1991.

_____, 이승희 역,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녹두, 1994.

50) 마리아 미즈·베로니카 벤홀트-톰젠, 꿈지모 역, 『자급의 삶은 가능한가 : 힐러리에게 암소를』, 동연, 2013.

_____, 이선이 역, 『내셔널리즘과 젠더』, 박종철출판사, 1999.
_____, 장미희 역, 『스커트 밑의 극장』, 논장, 1991.
_____, 나일등 역, 『여성혐오를 혐오한다』, 은행나무, 2012.
_____, 이선이 역, 『위안부를 둘러싼 기억의 정치학』, 현실문화연구, 2014.
_____· 조한혜정, 사사키 노리코·김찬호 역, 『경계에서 말한다』, 생각의나무, 2004.

2. 단행본

강가람, 『2000년 여성국제법정을 통해 본 초국적 여성 연대의 가능성: 한일 사회 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6, 105-108쪽.
김욱동, 『번역의 미로』, 글항아리, 2010, 55쪽.
김은실, 「여성주의 지식의 생산과 제도화의 정치학」, 『글로컬 시대 아시아 여성학과 여성운동의 쟁점』,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학센터 기획, 한울, 2016, 75-102쪽.
김현미, 『글로벌 시대의 문화번역』, 또하나의문화, 2005, 50-51쪽.
서동진, 『동시대 이후: 시간—경험—이미지』, 현실문화연구, 2018, 10-41쪽.
이상화, 「'아시아'와 '아시아여성학'의 개념화를 위하여」, 『글로컬 시대 아시아여성학과 여성운동의 쟁점』,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학센터 기획, 한울, 2016, 46-74쪽.
정혜욱, 『번역과 문화연구』, 경성대출판부, 2010.
라미아 카림, 박소현 역, 『가난을 팝니다: 가난한 여성들을 착취하는 착한 자본주의의 맨얼굴』, 오월의봄, 2015.
마리아 미즈·베로니카 벤홀트-톰젠, 꿈지모 역, 『자급의 삶은 가능한가 : 힐러리에게 암소를』, 동연, 2013.
쑨거, 김민정 역, 『왜 동아시아인가: 상황 속의 정치와 역사』, 글항아리, 2018, 39쪽.

프레드릭 제임슨, 신현욱 역, 『문화적 맑스주의와 제임슨』, 창비, 2014, 162-163쪽.

호미 바바, 나병철 역, 『문화의 위치: 탈식민주의 문화이론』, 소명출판, 2002, 53쪽.

Eliza Steinbock, “Misogyny”, *Keywords for Radicals: The Contested Vocabulary of Late-Capitalist Struggle*, Kelly Fritsch, Clare O'Connor, A. K. Thompson (eds.), AK Press, 2016, p.265.

Eve K. Sedgwick, *Between Men: Male Homosocial Desire and English Literature*, New York: Columbia UP, 1985.

Inderpal Grewal, *Transnational America: Feminisms, Diasporas, Neoliberalisms*,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5, p.133.

Jasbir Puar, *Terrorist Assemblages: Homonationalism in Queer Times*,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7, pp.89-90.

Joan Scott, *The Politics of the Veil,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7.

Michael Scarce, *Male on Male Rape: The Hidden Toll of Stigma and Shame*, New York, NY: Insight Books, 1997.

3. 논문

곽진영, 「동아시아 거버넌스와 NGO연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초국적 연대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15권 3호,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06, 31-62쪽.

김보명, 「혐오의 정동경제학과 페미니스트 저항: <일간 베스트>, <메갈리아>, 그리고 <워마드>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34권 1호, 한국여성학회, 2018, 1-31쪽.

김영선, 「한국 여성학 제도화의 궤적과 과제」, 『현상과인식』 제34권 3호, 한

국인문사회과학원, 2010, 323-350쪽.
김용복, 「일본 우경화, 한일관계 그리고 동아시아: 과거사 갈등과 영토분쟁」, 『경제와사회』 제99호, 비판사회학회, 2013, 36-62쪽.
김은실, 「민족 담론과 여성: 문화, 권력, 주체에 관한 비판적 읽기를 위하여」, 『한국여성학』 제10권, 한국여성학회, 1994, 18-52쪽.
김은희, 「1920년대 중국여성문학과 대중매체」, 『여성문학연구』 제4권, 한국여성문학학회, 2000, 121-149쪽.
이사라, 「『여자계』를 통해 본 신여성 담론과 시」, 『여성문학연구』 제4권, 한국여성문학학회, 2000, 53-75쪽.
김주희, 「오늘 왜 페미니즘은 '혐오'와 접속했는가: 『말과활』 2016년 가을 혁신호 발간 기념 토론회 후기」, 『말과활』 제12권, 일곱번째숲, 2016, 105-113쪽.
김현미, 「난민 포비아와 한국 정치적 정동의 시간성」, 『황해문화』 제101호, 새울문화재단, 2018, 210-228쪽.
나 영, 「지금 한국에서, TERF와 보수 개신교계의 혐오선동은 어떻게 조우하고 있나」, 『문화과학』 93권, 문화과학사, 2018, 50-72쪽.
류진희, 「'촛불 소녀'에서 '메갈리안'까지, 2000년대 여성혐오와 인종화를 둘러싸고」, 『사이間SAI』, 제19호,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5, 41-66쪽.
문소정, 「동아시아 여성평화운동과 일본 여성의 횡단정치학」, 『사회와 역사』 제89권, 한국사회사학회, 2011, 305-335쪽.
민가영, 「국가횡단적 비교 여성학의 모색: 아시아 여성학에 대한 재검토를 중심으로」, 『역사와 문화』 제21권, 문화사학회, 2011, 81-107쪽.
박이은실, 「퀴어 이론가: 이브 코소프스키 세즈윅」, 『여/성이론』 제30호, 도서출판여이연, 2014, 133-165쪽.
박정미, 「여성주의는 민족주의를 초월할 수 있는가?」, 『진보평론』 제5호, 박종철출판사, 2000, 447-454쪽.
소현숙, 「누가 일본군 위안부였던 여성의 침묵을 강요하였는가」, 『한국역사연구회회보』 제38권, 한국역사연구회, 2000, 15-19쪽.

에구사 미츠코, 「신체언설에 나타난 근대화: 여사야정자 『흐트러진 머리(みだれ 髪)』의 표현을 통해서」, 『여성문학연구』 제4권, 한국여성문학학회, 2000, 155-172쪽.

윤여일, 「동아시아라는 번역공간」, 『경제와사회』 제93호, 비판사회학회, 2012, 193-218쪽.

윤영실, 「동아시아의 '장소들'과 한국근대문학의 탈영토화: 조선인 '위안부' 재현 서사들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67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7, 79-120쪽.

이덕화, 「신여성문학에 나타난 근대체험과 타자의식: 김명순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4권, 한국여성문학학회, 2000, 17-47쪽.

임명진, 「번역, 권력, 그리고 탈식민성」, 『현대문학이론연구』 제50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12, 171-198쪽.

정이환·김영미·권현지, 「동아시아 신흥 선진국의 여성고용: 한국과 대만 비교」, 『한국여성학』 제28권 1호, 한국여성학회, 2012, 147-181쪽.

하효홍, 「신문기사에서 소설까지: 호방란 사건 분석」, 『여성문학연구』 제4권, 한국여성문학학회, 2000, 81-115쪽.

허 윤, 「1980년대 여성해방운동과 번역의 역설」, 『여성문학연구』 제28권, 한국여성문학학회, 2012, 239-264쪽.

Cecilia L. Ridgeway, "Framed before we know it: How gender shapes social relations," *Gender & Society* 23, 2009, pp.145-160.

Marieke de Goede, "Mastering 'lady credit'", *International Feminist Journal of Politics* 2(1), 2000, pp.58-81.

Paula England, "The gender revolution: Uneven and Stalled," *Gender & Society* 24(2), 2010, pp.149-166.

4. 언론기사

김윤덕, 「'여성 파워' 梨大 여성학과 30주년이 조용하다는데…」, 『조선일보』,

2012.1.28.
김태훈, 「IS보다 무뇌아적 페미니즘이 더 위험해요」, 『그라치아』, 제48호, 2015.02.02.
김향미, 「여성학 폐지는 인문학의 위기」, 『경향신문』, 2011.09.13.
정원식, 「'응답하라' 20대 여성들, 페미니즘 도서 열풍 이끈다」, 『경향신문』, 2016.08.09.
정희진, 「미소지니=여성혐오?」, 『한겨레』, 2017.08.04.
최보윤, 「[전투복 벗는 페미니즘] 성의 정치 대신 생활정치 입는다」, 『조선일보』, 2007.01.01.
최보윤·김미나, 「[전투복 벗는 페미니즘] 이젠 남성이 여성학의 '소비자'」, 『조선일보』, 2007.01.02.
한겨레, 「유럽·미국·일본의 여성 현실 소개 〈90년대의 아담과 이브〉」, 『한겨레』, 1991.11.21.

Abstract

A Critique of Ueno Chizuko's gender-essentialism

Kim, Joohee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ast Asian flow and change of feminist knowledge culture through the book, *Onnagirai: Misogyny in Japan*, written by Ueno Chizuko. The theory of East Asia is the topic of sociology of knowledge that has been debated for more than 20 years in South Korea. However, feminism has been mainly used as a tool to explain and change the Korean society represented by 2015. In this study, East Asia was analyzed with a translation-related perspective, juxtaposing the time of 1995 and 2015, with the works by Ueno Chizuko. It points out some of the trends that were seen in unprecedented boom of feminism as the name of gender-essentialism and revealed that this trend was the effect of 1995 when Asia was mobilized as a target of development and embraced it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It is the same problem with the book of Ueno Chizuko, *Onnagirai: Misogyny in Japan* which pathologize the hatred, and *Patriarchy and Capitalism* which rejects the contemporariness between Korea or Asia, and Japan. This study urged the critique of Asian feminism reinforced by gender-essentialist feminism through the post-colonial reflection to the universal discourse of women's human rights, and the creation of a possibility of political resistance in consideration of historical temporality.

Key words : Ueno Chizuko, *Onnagirai: misogyny in Japan*, politics of translation, gender essentialism, popularization of feminism, Asian women's studies

■ 본 논문은 2019년 7월 10일에 접수되어 2019년 7월 16일부터 8월 1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9년 8월 19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